

## 특별회의[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 온라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 행동

2022. 10. 10.(월) 13:00-15:30

주관: 유네스코(UNESCO),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광역시교육청

## 배경

2019년 11월 유네스코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차별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트레이너들을 위한 트레이닝” 주제로 인종차별과 차별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Master Class Series on Racism and Discrimination)를 처음 개최하였다. 마스터 클래스는 청소년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트레이너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마스터 클래스는 청소년,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차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하고 함께 학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현재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 ICCAR) 회원도시들 간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UNESCO APCAD)의 의장 도시로서 광주광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차세대 반차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를 특별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광주 시리즈는 코로나로 인해 더 활발해진 온라인 소통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혐오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액션’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실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 결과에 의해 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 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59.5%에 달했다. 또한 10대 및 20대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온라인 상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목표

1.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와 청소년들이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간단한 소개
2. 광주 시리즈 청소년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3.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 청소년 참가자들의 경험에 대한 논의
4. 광주 시리즈의 모범 사례들을 함으로써 광주 시리즈가 미래에 아시아 수준으로 프로그램 범위가 확대할 가능성에 관한 논의



## 주요 논의사항

1.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 소개
2. 청소년 참가자들의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로부터 배운 내용 및 경험 공유
3.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의 모범 사례 및 한계점



unesco



세계인권도시포럼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WW.WHRCF.ORG

WHRCF@GIC.OR.KR | +82.62.226.2734